



모터스포츠와 사랑에 빠진 뮤지션 김진표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들 한다. 가수이자 방송인, 또 레이싱팀 감독이기도 한 김진표(40)는 이 명언을 2차레나 몸소 실천했다.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그는 뮤지션으로 큰 사랑을 받았고, 이젠 그토록 아끼던 자동차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세창 류시원 제인으로 시작한 모터스포츠 연예인 꼬리표 떼기 위해 남들보다 더 노력
이젠 운전대를 놓고 레이싱 팀 감독에 전념
“좋아하는 것에 미칠 수 있는 난 북받은 사람”



김혜타이어 엑스타 레이싱팀 김진표 감독(오른쪽)이 소속팀 카레이서인 정익철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나란히 걷고 있다. 사진제공 | 김혜타이어



자동차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김혜타이어 엑스타레이싱팀 김진표 감독이 이제는 무대보다 익숙해진 서킷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제공 | 김혜타이어

●레이싱은 내 운명?

사진 찍는 취미를 가진 김진표는 경기장으로 출사를 다니다 이세창과 류시원의 제안에 연예인 레이싱팀 ‘알스타즈’에 첫 발을 들였다. 평소 산만한 성격이었던 그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레이싱에 곧장 매료됐다. 김진표는 “모터스포츠는 정말 단순 무식했다. 계속해 코너가 이어지니 스스로 자책할 순간도, 딴 생각이 들어올 틈도 없더라. 그만큼 나를 집중시켰다는 데에 스스로에게 깜짝 놀랐다”고 떠올렸다.

재능도 있었다. 2006년 겨우 3~4차례 연습하고 출전한 생애 첫 대회 ‘스피드 페스티벌’에서 예선 1위, 결선 3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그는 “좋은 스승(오일기)을 만났고, 성적이 나왔고, 가르쳐주는 대로 점점 빨라졌다. 레이싱에 완전 빠져 지냈다. 서킷이 있는 용인으로 이사를 갈 생각도 했으니까”라며 웃었다.

김진표는 이후로도 끊임없이 클래스를 높여 도전했다. 트로피가 늘어났고, 2010년 GM 대우 레이싱팀에 정식으로 입단했다. 진짜 카레이서로서의 커리어가 시작됐다. 2014년엔 신생팀 김혜타이어 엑스타레이싱팀의 초대감독 겸 선수로 새롭게 출발했다. ‘지도자’의 직책까지 얻으며 업계의 인정을 받았다. ‘고속성장’이란 표현이 아깝

지 않을 정도의 빠른 행보였다.

모든 도전이 그렇듯 시련도 있었다. ‘연예인’이라는 꼬리표였다. ‘후원’을 받아 레이싱을 즐기는 연예인들에 대한 드라이버들의 비난에 직면했다. 그러나 레이싱을 향한 강한 열망이 이를 넘어섰다.

“남들에게 비난 받는 게 싫어서 포기하기엔 레이싱이 너무 재미있었다. 답은 명확했다. 내가 더 빨라지는 거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 계속 우승을 하니 시선이 바뀌더라. 연예인이 아닌 빠른 드라이버로 보기 시작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연예인이라는 생각을 했거나, 인기에 힘입으려는 알뜰한 생각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다. 정말 순수한 열정이었다.”

●김진표와 음악, 그리고 자동차

레이싱 경력 10년차인 그에게 음악은 오히려 ‘취미’가 됐다. 1995년 그룹 ‘패닉’으로 데뷔해 이름을 알린 그로선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가수와 카레이서, 두 분야 모두에서 성공가도를 걸어온 그는 스스로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단지 좋아하는 일에 미쳤을 뿐”이라고.

어릴 적 ‘어린이’ 김진표는 유독 자동차를 좋아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자동차 잡지를

사 모았고, 유치원 시절에는 택시를 탈 때 자신이 원하는 차종이 아니면 타지도 않았단다. 여기에 한 술 더 뜬다. “중학교 때는 내가 원하는 차가 설 때까지 횡단보도를 안 건넜다. 그 차를 너무 보고 싶어서(웃음).” 이어 “차를 병적으로 좋아했다”고 고백했다.

김진표의 인생 모토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미쳐서 하자’다. 파란만장한 그의 삶처럼 화끈하다. 실제로 그는 음악에 미쳤고, 차에 미쳤다. 그리고 인정을 받았다. 김진표는 “나를 미치게 하는 것이 있으면 내 모든 걸 던졌다. 내 영혼을 불태워서, 날 가져가 달라면서, 하고 싶은걸 미쳐서 하면 뭐가 되더라. 그런 점에서 나는 정말 북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나는 더 미치고 싶다

올해부터 김진표는 운전대를 놓고, 감독직에 전념하기로 했다. 물론 아쉬움은 남는다. 여전히 드라이빙에 대한 열망이 크다. 그러나 본인의 한계를 인정했다. 김진표는 최근 3년 동안 참가한 대회에서 라운드 내 3등으로 2차례 포디엄에 올랐지만, 시리즈 순위는 7위에 그쳤다. “우리 팀은 우승을 해야 하는 팀이다. 나는 한계를 보고 으니 신인이나 진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드라이

버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부담감도 크다. 엑스타레이싱팀은 ‘2016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SK ZIC 6000 클래스에서 드라이버(정의철)와 팀 모두 챔피언에 올라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당시 김진표(7위)가 선수 겸 감독으로 두 개의 타이틀을 동시에 석권했으니 그가 감독직에만 집중하는 이번 시즌엔 성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는 “올해는 선수를 겸하지 않으니 핑계를 댈 것도 없어 더 부담이 된다”면서도 “지난해 창단 3년 만에 좋은 기록을 세웠으니, 이제는 명문 팀, 오래가는 팀으로 만들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엑스타레이싱팀은 지난 14일 전남 영암에서 열린 ‘2017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캐딜락 6000클래스 2차전에서 1·2위를 휩쓸었다. 출발이 좋다. 김진표는 “엑스타레이싱팀 감독직은 내게 큰 기회이자 소중한 직책이다. 이 마음이 변해선 안 된다. 모터스포츠가 연예계만큼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나는 여기서 큰 결실을 맺고 싶고, 지금까지도 잘 맺어왔다고 생각한다”며 혁신에 찬 눈빛을 보였다. 김진표가 한 번 더 미쳐보고 싶은 순간이 찾아왔다.

영암 |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프로농구 ‘더블 파울’, 과실상계 되지 않는다



Sports & Law Story

양준헌 부장검사
법무부 범죄처선진화과장

남자프로농구 챔피언 결정 2차전(4월 23일)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공격팀이 사이드라인에서 패스를 통해 경기를 재개하려고 했다. 수비팀은 대인방어를 통해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던 중 공격팀 선수 한 명이 갑자기 수비팀 선수를 손으로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 심판은 휘슬을 불었다. 그와 동시에 넘어진 수비팀 선수가 발뚧 일어나 공격팀 선수를 강하게 밀쳤다. 심판은 비디오판독 끝에 더블 파울(Double Foul)을 선언했다.

이처럼 몸싸움이 심한 스포츠에선 양 팀 선수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파울을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양쪽 선수가 자리다툼을 위해 허용되지 않을 정도의 몸싸움을 하거나, 상대방의 반칙에 대해 보복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때는 통상적으로 두 선수 모두에게 파울이 선언된다. 어느 한 쪽이 더하고 덜하고를 따지지 않는다. 다만 그 정도에 따라 덜한 선수에게는 조금 약한 파울이, 더한 선수에게는 강한 파울이 선언된다. 또 사후 징계의 정도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두 선수 모두에게 파울이 선언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처럼 더블 파울이 선언된 경우 선수들은 억울하다는 몸짓을 자주 보인다. ‘내 잘못은 상대방만큼은 아닌데, 왜 나한테도 파울을 부

느냐?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니 상대방에게만 파울을 붙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다. 과연 그럴까?

●상대방에 맞서 싸우면 내 죄는 덜어질까?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A는 밤늦게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B와 시비가 붙었다. B와 그 일행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한 것이 발단이었다. A는 나름 정중하게 요청했지만, 술에 취한 B가 자꾸 시비를 걸어왔다. A가 응대하지 않자 화가 난 B가 주먹으로 A를 때리기 시작했다. A는 처음에는 방어만 했다. 그러나 B의 폭행이 계속되자 주먹으로 B를 몇 대 쥐어박았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정당할까?

판례는 ‘A의 행위가 B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다.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싸움에서 누가 더 많이 때리고 누가 더 조금 때렸는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참고가 될 뿐이다. 이처럼 스포츠에서의 경기장질서유지를 위한 징계나, 국가에서의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형벌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잘못과 나의 잘못이 상쇄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은 어떨까?

상대방의 잘못이 내 잘못을 정하는 데 참작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민법상 ‘과실상계(過失相計)’라고 한다. 상대방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손해를 입은 사람의 과실도 있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를 고려해 배상액을 정한다.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보자. B의 과실로 A가 1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B도 A의 과실로 2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 경우 절차를 따지자면 A가 20만원을 준비하고, B가 100만원을 준비해 동시에 서로에게 주어야 한다. 그런데 A가 주어야 할 20만원을 B의 배상금에서 깎아주면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처럼 과실상계는 절차의 편의를 위해 실제로 주어야 할 돈만 계산해 건네도록 한 것일 뿐이다. 질서유지의 관점이 아닌 개인간의 손해를 돈으로 계산해 보전해주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파울 콜(Call)은 상계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인 형사책임의 영역에선 이런 상계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다. 징계는 단순히 돈으로 손해를 배상해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의 영역에선 손해배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국가를 국가답게, 스포츠를 스포츠답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형벌권, 징계권의 영역이다. 내 허물이 남의 허물로 덮여지지 않는 것이다.

부·명예·성장...‘로드 투 아솔’ 도전하는 이유

사사키 신지 “격투가로서 성장 위해 출전”
레오 쿤츠 “수십억원 벌 기회...홍분된다”



ROAD FC의 2017년 글로벌 프로젝트 100만 달러 토너먼트 ‘ROAD TO A-SOL’ 예선이 막바지다. 16강 토너먼트 대진 완성을 눈앞에 뒀다.

지난해 11월 중국 지역예선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러시아, 일본에 이어 인터내셔널 예선 A·B조를 거쳐 14명의 본선 진출자가 확정됐다. 마지막 남은 중국 지역예선 1경기와 인터내셔널 예선 1경기를 마치면 16강의 얼굴이 모두 확정된다. 예선을 통과한 파이터들은 16강, 8강, 준결승, 결승까지 4개의 판돈을 통과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선수는 ROAD FC 라이트급 챔피언 권아솔(31·팀강남·압구정집)과 대결한다. 권아솔마저 꺾으면 ROAD FC 라이트급 챔피언 타이틀과 함께 100만 달러(11억20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5연승을 거두면 돈과 명예가 모두 들어온다.

세계 각 단체 챔피언 출신의 최강 파이터들은 모두 우승을 목표로 모였다. 100만 달러와 챔피언 타이틀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긴다. 이들에게 ‘ROAD TO A-SOL’은 어떤 의미일까.

지난해 12월 ROAD FC 라이트급 챔피언 권아솔과의 대결에서 패한 뒤 인터뷰에서 아내와 딸에 대한 사랑을 담은 멘트로 감동을 줬던 사사키 신지는 “ROAD FC 100만 달러 토너먼트에 도

전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ROAD FC에 도움이 되고 싶고, 내 격투기를 보여주며 내 자신이 격투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사사키는 2월 XIAOMI ROAD FC 036에서 중국의 알버트 쉐를 꺾고 16강 티켓을 따냈다.

같은 대회에서 ‘태권 파이터’ 홍영기를 꺾고 16강에 오른 한국계 미국인 레오 쿤츠는 “ROAD FC 100만 달러 토너먼트 출전계약을 했을 때가 MMA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계속해서 ROAD FC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MMA에서 단 몇 명만 1년에 수십억 원을 벌 기회를 갖는다. 정말 감사한 기회고, 그 기회를 잡게 돼 흥분이 된다”고 했다.

영국 BAMMA와 러시아 M-1 라이트급 챔피언 출신의 만수르 바르나위도 마찬가지다. 4월 XIAOMI ROAD FC 038의 인터내셔널 예선 B조에서 기원빈을 꺾고 본선에 진출한 그는 “우승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내 세 번째 타이틀을 얻고 싶다. 세계 타이틀이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고 있다. 거대하고 신성한 기회다. 토너먼트에서 이겨서 우승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흘린 모든 땀과 훈련을 위해 회생한 것들, 내 인생이 모두 자랑스러워질 거다”고 했다. 다른 파이터들도 이번 토너먼트를 거치면 자신이 격투기 선수로서 더욱 성장할 것을 확인했다. 상금을 받으면 각자 원하는 곳에 쓰겠다고 했다. 이처럼 ‘ROAD TO A-SOL’은 주먹 하나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다.

김종현 기자 marco@donga.com